

초정 박제가 산문 연구

—사상문화리론 및 그 기술방식을 중심으로

정일남



NLIC2970838832

민족출판사

초정 박제가 산문 연구

—사상문화리론 및 그 기술방식을 중심으로

정일남 저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楚亭朴齐家散文研究：朝鲜文 / 郑日男著. —北京：民族出版社, 2012.4

ISBN 978-7-105-12100-7

I. ①楚… II. ①郑… III. ①古典散文—文学研究—韩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312.60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2)第060033号

出版发行：民族出版社出版发行

地 址：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100013

网 址：<http://www.e56.com.cn>

印 刷：北京市迪鑫印刷厂印刷

经 销：各地新华书店经销

版 次：2012年4月第1版 2012年4月北京第1次印刷

开 本：880毫米×1230毫米 1/32 字数：200千字

印 张：7.5

定 价：22.00元

ISBN 978-7-105-12100-7/I · 2329(朝254)

该书若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58130534；发行部电话：64211734)

차례

제1장 서론	1
제2장 초정 사상문화리론의 범주와 내함	6
제1절 정치관련 개혁사상	7
제2절 경제관련 개혁사상	15
제3절 문화관련 개혁사상	51
제3장 초정 사상문화리론의 구조적특징	111
제1절 상부상조 논리와 구조	113
제2절 대립통일 논리와 구조	126
제4장 초정 사상문화리론의 기술특징	148
제1절 《북학의》의 비교문화적특징	149
제2절 리론의 설문적특징	171
제3절 격언의 운용 및 창출	181
제5장 초정 사상문화리론의 사유패턴	193
제1절 열린 사유	194
제2절 대립통일 사유	204
제3절 절제의 사유	208
제4절 벽, 제, 허의 사유	214
제6장 맺는 말	221
참고문헌	227

제1장 서론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조선후기의 급진적인 사회개혁가이고 문학예술가이다. 그는 당시 중국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조선이 중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했다. 그는 《북학의》를 비롯한 허다한 산문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학문과 “사상문화리론”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초정의 개혁사상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자들의 평가 또한 나름대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중원문화를 지나치게 좋아한다 해서 당시에는 당벽(唐癖), 당괴(唐魁)로 지목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그의 한어(漢語)에 의한 언문일치(言文一致)의 주장과 관련하여 반국가적, 반주체적이라는 혹평¹⁾도 뒤따랐다. 그의 개혁사상이 구체적인것에 머무르고 추상화에 이르지 못해 사상가로 불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론자도 있다.²⁾

하지만 그보다 정면평가가 더 많고 화려하다. 초정은 “북학과

1) 金相洪: 《조선후기 문학사상의 특성—실학과를 중심으로》(《동양학》 제1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년)

2) 朴星來: 《박제가의 기술도입론》(《진단학보》 제52집, 1981년)

중의 가장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사상가이다”, “《북학의》는 서리 한 안팎에 가득 찬 절세의 명저이다”³⁾, “정유 박제가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상사의 기적이다.”⁴⁾, 조정의 량반신분층의 상인층화 사상은 “실학사상중에서도 독특하고 획기적인 사상이다.”⁵⁾, 그는 “조선 사상사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사상 체계를 구축한 사상가요”,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뛰어난 문인이었고, 이름 있는 화가 겸 서예가이기도 하다.”⁶⁾ 조정은 “시대를 앞서간 학자이며”, “미학사상가이기도 하다.”⁷⁾는 등 찬사가 그러하다.

조정의 학문과 제반 사상에 대한 연구도 그의 시와 더불어 다양한 시각으로 진행되었다.⁸⁾ 실학과, 백담시파, 북학파, 연암그룹, 4가시인 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그 검토의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사상의 측면에서 철학사상, 실학사상, 북학사상, 경제사상, 민권사상, 문학사상⁹⁾ 등이 논의

3) 김용덕: 《박제가의 사상》(《사학연구》 제10호, 1961년)

4) 김용덕: 《朴齊家の 經濟思想—奇蹟의 선각자》(《震檀學報》 제52호, 震檀學會 1981년)

5) 신용하: 《박제가의 사회신분관과 사회신분제도 개혁사상》(《조선후기 실학과 의 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7년, 제366~제401쪽)

6) 안대회: 《박제가론—본세질속의 고함》,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궁궐한 날의 벗》 태학사 2000년)

7) 송재소: 《實學派 文學觀의 一考察》(《한국한문학연구》 제26집, 2000년)

8) 조정의 문학과 예술을 망라한 학문과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체로 박사논문 9편(여기에는 4가나 그룹의 한 사람으로 다룬 박사논문 5편을 망라한다.) 석사논문 7편, 일반 논문 100여편으로 파악할수 있다. 북학파나 실학과 등의 구성원으로 연구된 저서나 논문을 감안하면 그 수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것이다.

9) 김용덕: 《朝鮮後期の 民權思想 —朴齊家の 生涯와 思想—》(《광장》 제47집, 1977년)

——: 《朴齊家の 經濟思想—奇蹟의 선각자》(《震檀學報》 제52호, 震檀

되었고 또 이러한 학문과 사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관점인 북학론, 개혁개방론, 경세론, 신분제개혁론(사회신분관), 농업론, 상업론, 개국통상론, 해운통상론, 기술수용론, 문학관, 언어 문자관, 회화관이 거론되었으며, 중국인식, 문학인식, 도자기인식과 문화의식, 문명의식, 미의식¹⁰⁾ 및 정치, 경제, 문화, 철학 등

學會 1981년)

小倉雅紀: 《朴齊家の 北學思想과 性理學》(《韓國文化》 제18집, 서울대학교, 1996년)

鄭雨峰: 《楚亭 朴齊家の 文學思想》(《朴齊家の 學問과 思想》, 韓國思想史研究會 1997년)

이철승: 《박제가의 철학사상에 나타난 비판정신과 반성리학적 경향》(《법한철학》 제25집, 법한철학회 2002년)

박광용, 오세영 외: 《조정 박제가의 실학사상과 해운통상론》(《해운물류연구》 제45호, 2005년)

10) 김경미: 《朴齊家の 文學認識과 詩論의 樣相》(《우리문학연구》 제8집, 1990년)

金柄珉: 《‘연경잡절’에 반영된 조정 박제가의 산수인식》(《茶山學報》 제13집, 茶山學研究院 1992년)

김수경: 《‘北學議’를 통해 본 朴齊家の 중국인식》(《研究論集》 제28집, 이화여대 대학원 1995년)

金順愛: 《楚亭 朴齊家の 繪畫觀》(전남대 석사논문 1997년)

김용헌: 《박제가 기술수용론의 의의와 한계》(《퇴계학》 제9집, 1997년)

김문용: 《朴齊家 經世論의 논리와 구조》(《민족문화연구》 제33호, 2000년)

金仁圭: 《북학과의 신분제 개혁론 연구》(《한국사상과 문화》 제19집, 2003년)

方炳善: 《楚亭 朴齊家, 繪菴 李喜經의 도자인식》(《미술사학연구》 제238집~제239집, 2003년)

박수밀: 《박제가의 언어 문자관과 문학세계—〈육서책〉에 나타난 문자관을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 제31집, 2006년)

宋載邵: 《實學派 文學觀 一考察》(《韓國漢文學研究》 제26집, 한국한문학회 2000년)

——: 《조정 박제가의 미의식과 시론》(《漢詩 미학과 역사적 진실》, 창작과비평사 2003년)

愼鏞廈: 《朴齊家の 商工業開發論과 開國通商論》(《經濟論集》 36권, 3, 4號, 서울대학교 1997년)

전반에 걸쳐 다루어졌던 상황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 및 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것은 그만큼 초정의 학문과 사상의 장력(張力) 내지 숨은 매력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산문에 구현된 초정의 “사상문화리론”¹¹⁾의 내함 연구에 치중했을뿐 그것의 구조나 기술특징 같은것은 거의 도외시 되었다. 초정의 사상은 확실히 획기적이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상을 표현하는 형식 또한 무시할수 없다. 사상과 형식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도 초정산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수 없다. 문과 도의 관계에서 도만 말하고 문을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과 같다. 학계의 이런 실정에 비추어 필자는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초정의 산문에서 구현된 학문 내지 “사상문화리론”의 범주 및 기술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초정의 개혁사상의 가치와 예술적매력을 규명하여 초정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고의 집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초정의 “사상문화리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조하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분별로 각각 검토되었을뿐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즉 각론의 성과를

안대희: 《열린 사회를 위한 개혁개방론, 박제가의 북학의》(《북학의》, 돌베개 2003년)

윤사순: 《박제가의 북학론》(《박제가의 학문과 사상》, 韓國思想史研究會 1997년)

李春寧: 《進北學議를 통하여 본 박제가의 농업론》(《진단학보》 제52호, 1981년)

- 11) 초정의 산문에 취급된 내용이 하도 광범위하여 잠정 “사상문화리론”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것을 때로는 “사상문화”, “사상리론” 내지 “리론”으로략칭하게 됨을 밝힌다. 물론 일부 견해는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사상문화리론”이라는 용어 기준에 포괄이 안될수도 있다. 하지만 초정의 제반 견해 내지 주장을 될수록 빠짐없이 천명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점도 밝힌다.

토대로 새로운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정의 사상리론의 범주와 내함을 각 분야와의 관련 속에서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사상문화리론”의 범주와 내함에 대한 전면 검토는 이어서 진행될 사상의 구성특징과 사유방식 등을 고찰하는 기초작업이 될것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가 망라된 전반에 대한 통찰속에서만만 사상리론의 구조와 사유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다.

셋째, 종합적인 인식이 추구되는가운데서 어떤 글은 새로운 해석, 또는 재해석이 가능하다. 조정의 글을 면밀히 검토하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수 있어 그의 사상리론의 의의를 풍부히 하는데 일조한다. 물론 이미 연구된 내용도 시각을 달리하면 새롭게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

넷째, 조정의 “사상문화리론”의 론리와 구조, 사고방식 그리고 비교의 방법은 조정의 학문과 사상의 매력을 구성하는 형식적 특징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는 현대인에게도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우선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조정의 “사상문화리론”의 범주와 내함을 검토한다. 다음 이와 관련하여 조정의 사상문화리론의 구조적특징과 그것을 담아낸 산문의 기술방식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사상문화리론”의 사유패턴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주로 기존연구를 검토, 귀납하는 방식에다 철학적 내지 비교 등의 방법으로 조정의 학문과 사상의 내함 및 그것의 구성원리와 기술 특징을 규명한다.

제2장 초정 사상문화리론의 범주와 내함

지금까지 초정의 사상문화리론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취를 거두었다. 이 시점에서 본장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초정의 사상문화에 대한 종합, 정리 작업을 진행한다. 초정의 사상문화리론을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분야로 대별하고자 한다. 정치는 신분제도를 비롯한 제도개혁에 관한 리론을 망라시키고, 경제는 농업과 상업, 해운통상, 그리고 기술혁신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며, 문화는 문학예술을 망라한 좁은 의미의 문화리론을 그 범주에 넣고자 한다. 필자는 이상의 세 분야가 이미 기본상 연구되었고 본장의 집필 의도도 주로 사상문화리론의 범주와 내함을 종합, 정리해내는 작업이므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논자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포섭하여 초정의 해당 관점을 규명하는 식으로 전개하려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작업을 통해 초정의 사상문화리론의 범주와 내함을 밝히면서 주로는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거나 거론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다루려한다.

제1절 정치관련 개혁사상

“목축이라는것은 나라의 큰 정치”¹²⁾라고 한것이나, “정치란 말을 적게 하고 힘써 행하는것일뿐”¹³⁾이라고 한 한나라 신공(申公)의 말을 빌어 정치를 해석한 초정의 언명처럼 정치라는 개념은 지금까지도 그 내함을 분명히 규명하기는 어려운듯싶으나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나 질서가 정치에 속한다 함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초정이 론한 신분제도나 과거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재 등용책 등에 관한 개혁주장을 정치범주에 넣어 다룬다.

정치와 관련된 글을 보면 대체로 《북학의(北學議)》의 외편(外篇)에 수록된 《과거론(科擧論)》, 《관론(官論)》, 《록제(祿制)》, 《병론(兵論)》, 《병오소회(丙午所懷)》¹⁴⁾, 《리희경농기도서(李喜經農器圖序)》, 《진북학의(進北學議)》의 《응지진북학의소(應旨進北學議疏)》, 《태유(汰儒)》, 《둔전지비(屯田之費)》, 《존주론(尊周論)》 등을 들수 있다. 물론 여기서 거론한 글 전체가 전문적으로 정치를 론한것은 아니다. 초정의 개혁사상은 거의 서로 다른 분야와의 관련을 중시하였는바, 수공업의 발달로 농업이 추진되고 외국과의 통상은 물질적 부만이 아니라 의식

12) 《초정전서》(하) 《북학의》內篇, 《畜牧》, “畜牧者, 國之大政也.”)

13) 《초정전서》(중) 《丙午所懷》, “漢申公之言曰: ‘爲治者不在多言, 顧力行何如耳.’”)

14) 《丙午所懷》는 《초정전서》(중)에 수록되었으나 다른 《북학의》(박정주 옮김, 서해문집, 2007.)역본에는 《북학의》외편에 수록했으므로 여기서는 후자에 따른다. 출처를 밝힐시에는 전자를 기준한다.

의 전환도 가져올수 있다는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의 많은 글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세 분야와 동시에 관련이 있는고로 다른 분야를 언급할 때에도 가끔 거론하게 되는것이다. 우선 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 현황을 검토하였다.

초정의 정치에 대한 개혁사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량반신분제도와 과거제도에 대한 언급이 많다. 대부분 경우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그중 하나의 소재로 검토한 경우가 많고,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은 보기도문편이다. 다음은 논문 발표의 시간순으로 기존연구 상황을 살펴본다.

조선의 학자 김광진 등이 집필한 《박제가의 개혁사상》¹⁵⁾은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과 태유론”이란 소재에서 량반은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장애물이고, 유식(遊食)하면서 농민만을 착취하므로 대담하게 선비를 도태하자는 주장을 폈다고 하였다. 동시에 과거제도와 문벌제도를 불합리한것으로 보고, “평범한 근로 대중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사업에 등용할것을 역설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론》(2)중 한가지 재주나 한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추천하고 신분은 미천하나 훌륭한 포부를 가진 인재들을 모두 다 조정에 등용할것을 강조한 점을 들어 초정은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면서 민주주의적 견해를 피력하고있으며, 사회발전에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지고있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목된다. 하지만 봉건군주를 인정하고 봉건제도의 전복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적사상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것이 그의 국한성이라는 지나친 평가도 없지 않다.

신용하의 《박제가의 사회신분관과 사회신분제도 개혁사상》¹⁶⁾

15) 김광진 외: 《박제가의 개혁사상》(《한국경제사상사》, 이성과 현실 1989년)

은 전문성을 띤 정치관련 논문으로서 초정의 정치관을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저자는 우선 초정이 량반신분제도와 관련하여 량반은 유식하는 신분층이고, 그 자제들은 과거와 관직에만 관심을 갖고 허학(虛學) 내지 진부한 과문이나 익히는 등 그 폐단을 10가지로 종합하고, 량반신분층을 “나라의 큰 좀벌레”이고 그 폐단이 나라를 그르칠 단계에 이른 점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량반신분제의 이와 같은 폐단에 대하여 두가지 방향, 즉 대대적 “태유”와 량반신분층의 상인층화로 개혁할것을 주장하였다고 평했다.

다음은 초정이 문벌과 당파에 의거해 합격자를 뽑는 등 과거제도의 폐단을 7가지로 개괄하고, 시험내용을 실학으로 하고 과거제도와 천거제도를 병행하는 등 그 개혁안을 8가지로 종합하였다고 하였다. 과거제도를 이와 같이 개혁하면 량반사족중에서 오로지 재능과 실력이 있는 인재만이 과거에서 선발되어 사족이 될 것이고, 대부분 사족들은 도태됨과 아울러 “태유”의 범주에 속하는 대량의 사족들을 상업에 종사시켜 상인층화 하는것이 초정의 생각이라 하였다.

김인규의 《북학파의 신분제 개혁론 연구》¹⁶⁾는 인재등용과 관련된 과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한 부분은 상술한것과 비슷했고, 다만 초정은 과거제에 의한 인재등용보다 천거를 더 중요시하였다는 평이 새롭다.

이헌창은 《박제가 경세사상의 구조와 성격(1)》¹⁷⁾의 《북학의》란 소제에서 초정의 《북학의》에 과거론, 관론(官論), 룝제(祿制), 병제(兵制) 등의 제도개혁론이 언급되고있음을 긍정하

16) 慎鏞廈: 《박제가의 사회신분관과 사회신분제도 개혁사상》(《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7년)

17) 金仁圭: 《북학파의 신분제 개혁론 연구》(《한국사상과 문화》 제19집, 2003년)

18) 李憲昶: 《박제가 경세사상의 구조와 성격(1)》(《한국실학연구》 제10집, 2005년)

고, 경제제도 개혁론은 표면화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개혁론을 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초정이 상업의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본말의 기존구성을 조절하여 량반도 상업에 종사하기를 주장한것은 사농공상제의 경제적폐단을 전면 제거하는 개혁안인바, 여기서 량반만이 관직을 독점하는 제도만 개혁하면 사농공상제를 폐지한 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정이 중국 과거제도를 배우자고 한것으로 보아 상인 집안의 자제도 과거응시자격을 부여하기를 바랐던것으로 판단했고, 유식량반의 “죤벌레론”과 “도태론”을 감안하면 서얼 출신의 초정은 사농공상제의 사실상 폐지를 의도하고있은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다.

이상의 각론을 참조하여 초정의 정치개혁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재를 뽑는 과거제도가 인재의 등용을 방해하고있으므로 개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주로 《과거론》(1,2)과 《시사책(試士策)》, 《병오소회》 등에서 다루었다. 그 기술 방식은 자문자답 형식으로 먼저 문의하고 스스로 그 문의에 해당하는 식으로 과거제도의 각가지 폐단을 해부하고 그것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초정은 과거시험을 맹목적으로 실행한데서 그전에 합격된 “인재”를 다 임용하기도 전에 다시 실시함으로써 “결국 합격자의 9할은 쓸모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험 내용이 실용적이지 못한 허문이지만 다행이도 과거에 합격하면 그 날로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을 버린다고 하였다. 그만큼 쓸모없는 공부라는 아이러니한 말이다. 그러니 글 잘 쓰는 사람을 시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것도 쓸데없는 공부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것이 되니 이 또한 전자보다 한수 우인 셈이다. 게다가 가령 과거에 합격했더라도 나중엔 문벌과 붕당(朋黨)에 따라 최종 기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이

런 과거제도를 시급히 개혁하지 않고는 인재선발은커녕 오히려 허위와 가짜와 비리만 조장하는 온상이 되어버리는것이다.

이와 같은 부패한 과거제도에 대해 초정은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즉 “과거제도를 고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중국의 제도를 배워야 한다.” 여기에는 문체, 고시관, 시험장의 출입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있다.¹⁹⁾ 그리고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시험을 치는 방법을 도입하고, 문벌에 관계없이 “재능과 덕이 뛰어나거나 한가지 기예라도 있는 자”를 추천하는 등 과거제도와 천거제도를 병행할것을 제안했다.²⁰⁾

2) 놀고먹는 양반들을 사족층에서 도태시켜 상인층화해야 한다. 초정은 사족계층을 놀고먹는 자이고 나라의 큰 쏬벌레로 규정했다. 날로 번성하고 나라 안에 널리 퍼져있는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곧 무역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한다는것이다. 장사를 가장 천시하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개혁안은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초정은 이들 사족들을 상인층화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쳤지 강요하는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이 무역업에 종사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가게를 지어주고 성과가 뚜렷한 자는 관리로 발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이들이 자원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자는것이다. 또한 무역업에서 성과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분야에서 재주가 있음을 말해주고, 그 재주를 인정하여 관리로 쓴다 함은 상술한 과거제도와 인재추천제를 병행하는 과거제도 개혁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사족들로 하여금

19) 《초정전서》(하) (《북학의》외편, 《科擧論1》) 《丙午所懷》를 포함하여 《北學議》의 역문은 주로 박병주 역의 《北學議》(서해문집, 2007)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원문은 생략한다.

20) 《초정전서》(하) (《북학의》외편, 《科擧論2》)

“날마다 리익을 추구하게 한다면 놀고먹는 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즐거이 직업에 종사하는 마음이 생길것”이고, 따라서 권세에 의지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혁안은 실은 본말(本末)의 사농공상(士農工商)제를 균등하게 재구성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있다. 그리고 “국법이 사대부에게는 시행되지 않는다.”²¹⁾는 발언도 역시 한비자의 “법은 귀인에게 아부하지 않는다”²²⁾는 의미와 다르지 않는바 이 또한 본말의 균등을 시사해 주는 언급이라 하겠다.

3) **상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적서차별제도를 폐지할것을 바랐다.** 초정은 그자신이 서얼출신이므로 해당출신들의 고충과 그 제도의 병폐를 남다르게 실감했을것이다. 즉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사촌 간에 상대를 노비로 부리거나 누런 머리에 등이 굽은 로인이면서 어린애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향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 손자나 조카별 되면서 어른을 꾸짖는 사람이 있는”²³⁾그릇된 풍속의 사회, 그것은 곧 적서차별제도의 악과임을 신랄하게 폭로했다.

4) **관리제도, 로임제도, 군인제도 등을 개량해야 한다.** 초정은 관직에도 문벌이 있어 깨끗한 관직과 더러운 관직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자는 수입이 많은 관직을 말하고 후자는 수입이 적은 관직을 가리킨다. 본래 관직에는 이런 구별이 없었는데 문벌이 형성된 후에 생겨난것이다. 그러니 문벌이 높은 자가 깨끗한 관직을 독점하고 문벌이 낮은 자에게 더러운 관직이 차례진다는

21) 《초정전서》(중)《丙午所懷》)

22) 《韓非子·有度》, “法不阿貴, 繩不繞曲.”

23) 《초정전서》(중)《丙午所懷》)

것이다. 이는 마치 지금의 사회에서 인기 직장 내지 인기 관직이 있는 것과 흡사하다. 전자는 흔히 돈 많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가 있는 가문 내지 고관 자제의 전유물이 되고, 후자는 돈 없고 사회관계가 넓지 못한 가문의 자제들에게 차례지는 것과 같다. 이처럼 관리제도의 폐단은 고금이 너무 유사하다. 예리한 초정의 안목을 실감할 수 있다. 요컨대 문벌과 수입으로 관직을 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초정의 주장이다.

당시 조선관리의 로임은 일본과 중국관리의 로임에 비해 훨씬 적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는지를 국가가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찌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초정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종을 굶겨가면서 날마다 부려먹기만 한다면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않을 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리치로 관리들도 로임이 적기 때문에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권세를 휘둘러 사리사욕을 채우고 심지어는 그 관직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리의 로임은 반드시 “농사로 얻는 수입과 같아야 하는 것”²⁴⁾이다. 농사는 잘되면 수확이 많고 잘 안되면 수확이 적다. 관리의 로임을 일본이나 중국처럼 보편적으로 제고해야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같은 도리로 관리도 그 성취도에 근거하여 로임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초정의 개혁안이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좋은 계시를 주는 생각이다. 사실 현재의 분배원칙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정책으로서 초정의 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주변에는 분명 하찮은 로임으로 근근이 평민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로임을 받으면서도 분수넘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거나 귀족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

24) 《초정전서》(하) (《북학의》 외편, 《楹制》)